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총아래 감동의 기쁜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7월 셋째주 공지 드립니다.

본당 로고 공모 🎨

본당을 대표할 로고 공모에 저희 하모니가 참여합니다. 의견 제공 또는 디자인 작업 등 여러면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며, 참여에 뜻을 두고 재미있게 우리 본당을 대표할 로고에 대해 다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감일이 7/31일이니 이메일과 문자 등 매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신속히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상은 신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부님 말씀: 복음서 📖

신자로서 믿음을 키우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바로알고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복음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를 통해 말씀을 새기고 삶의 지침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일기/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신부님께서 만들어주신 복음 읽기/쓰기표를 참고하시고 (첨부파일) 매일 복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영명축일 (8/24) 🌸

- 행사 (8/21 주일): 최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 행사를 트락회와 계획중에 있습니다. 21일 주일날 있을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신부님 영적선물 봉헌: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신부님을 위한 기도의 영적 선물을 전 신자가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모니는 정성을 담아 한꺼번에 봉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자 정성을 담은 기도/횃수를 적어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면 최종 합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임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정성을 모아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성경모임 (7월 23일) 🌺

조마오로 수녀님의 지도아래 루카복음 말씀을 나누는 만남의 성경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 (7/23) 성당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은총 가득한 이 시간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7월 23일 토,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영화의 밤 (7월 23일) 🎬

두번째 영화의 밤이 토요일 (7/23) 오후 6:30에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곡성'을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참석여부를 알려 주세요.

2016년 연수 (7월 30-31일) 🏰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 (<http://www.villamariadelmar.org>) 에서의 청년 여름 연수가 열흘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석하는 님들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책과 '가톨릭핵심교리상식' 자료를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석자들에게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권장 독서일정



- 7/6(수)-7/10(일): 1장 성경에 대한 궁금증

- 7/11(월)-7/15(금): 2장 믿음에 대한 궁금증

- 7/16(토)-7/20(수): 3장 교회에 대한 궁금증

- 7/21(목)-7/23(토): 4장 성사에 대한 궁금증

- 7/24(일)-7/28(목): 5장 전례에 대한 궁금증

- 7/29(금): 쉬거나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 7/30(토)-7/31(일): 연수


주일학교 교사 모집



9월에 개강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세례 받은지 3년 이상된 가톨릭 신자중 영어/한국어 가능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8월 한달 간 주임신부님의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7월 31일** 까지 본당 사무실 또는 청소년 분과위원 (Tel. 510-847-2108) 에 신청해 주십시오.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 **이름표:**  성당 입구에 비치된 본인의 이름표를 찾아 성당에서 항상 부착 하시고 개인이 지참 하시길 바랍니다. 하모니 이름표에 기재된 '뜨락반'은 지우고 사용하세요.

[(눅)연중 제17주일] 7월 24일 복음 말씀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13

1 예수님께서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7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audio 로 들으실수 있습니다

http://app.catholic.or.kr/web/missa/month_missa_content.asp

은총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하모니 harmony 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박보라 울리아나 917-817-8908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

Web: www.oakcc.org

3 Attachments

